

## 5/4(수) 에스더 묵상 5

에스더 2:21-3:1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고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두 내시들의 음모를 알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이러한 준비를 하신 이유를 우리는 에스더서 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 왕의 목숨을 구함

모르드개는 왕궁의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21절상,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이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이전부터 행하던 일로 추정됩니다(에 2:11,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그리고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공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때 모르드개는 왕을 배반하려는 자들의 악한 음모를 눈치 차리게 됩니다(21절하-22절상,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개가 알고..**”). 왕의 문을 지키던 내시들은 ‘대궐 문’과는 다른 왕의 침실과 가까운 왕궁의 어떤 문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왕을 침실 가까이에서 지키는 자들로서 왕으로부터 상당히 신임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또 이들의 암살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모르드개도 왕으로부터 지근 거리에 있어야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그 모든 음모를 왕후인 에스더에게 먼저 알리게 됩니다(22절,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이는 아마도 에스더로 하여금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한 지혜로운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왕의 궁중 일기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 왕의 인정을 받은 하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리게 됩니다(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의 자리에 앉은 후를 말합니다. 약 3-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7절, “**아하수에로 왕 제십이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사무엘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아마도 페르시아 왕들의 포용적 정책에 근거하여 높은 지위에 앉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인정을 받아 높은 자리에 앉게 된 하만은 그 이후 교만한 짓을 서슴치 않고 행하게 됩니다(2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개가 단순히 하만에게 인사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렸다는 것을 놓고 볼 때 하만이 왕과 같이 자신에게도 신적인 경배 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즉, 유일신을 섬기는 모르드개 입장에서는 하만에게 그같은 절을 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이 일로 하만은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그는 이 일로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을 모두 죽이고자 악한 계획을 품게 됩니다(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하만의 이같은 제안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는 술수였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잔인하며 사악한 인물 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만의 요구로 이 일은 왕에 의해 일사천리로 처리가 됩니다(10-11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자신을 신으로 믿고 있는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계획이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했고 하만은 그런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페르시아에 남은 유다인들은 갑작스러운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같은 위기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멜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한 직후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한 최초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진멸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출 17: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손에 페르시아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 아래에 있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지금도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죄와 피흘리기 까지 항상 싸우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북한을 위한 기도:**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평화가 들어가서 참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북한 땅에 지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물결이 다시 일어나서 북한 땅이 다시금 복음화되게 하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뉴헤이븐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